

더불어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 보도자료
(본부장: 서미화 의원)

보도일시	2025. 5. 22.(목)	담 당 자	노혜담 선임비서관 (02-784-6441)
배포일시	배포 즉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 대전문해교육협의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와 정책협약 체결

- “장애인과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 을 위한 연대!” 대전지역 장애인 및 가족 지지선언 기자회견도 이어져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본부장 서미화)는 오늘(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사무실에서 대전문해교육협의회 및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대전지역 장애인 및 가족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먼저 오후 2시에 열린 대전문해교육협의회 정책협약식에는 서미화 본부장,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 박재홍 대전시당 장애인위원장, 윤혜숙 담쟁이시민학교 대표, 이춘희 대전교원시니어직능클럽 교장, 김영 대전시민문화센터 사무국장, 김정숙 (사)모두사랑 대표, 윤원길 반딧불이 대표, 이종상 성은야학교 교장, 백명진 아우름평생교육원 대표, 전성하 청춘학교 교장, 장성백 한마음야학 교장, 전은영 한밭향토학교 교장, 구미자 대전문해교육협의회 회장, 박지영 대전장애인배움터풀꽃야학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 정책협약서에는 ▲불공정한 평생교육법 개정, ▲중앙-지방 연계 국가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내 관련 부서 설치 및 예산 확보 등이 명시됐다. 이어 오후 2시 40분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와 대전문해교육협의회 정책협약식이 진행되었으며, 서미화 본부장,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 박재홍 대전시당 장애인위원장, 한만승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대전지부장이 협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장애인 가족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정책협약서에는 ▲발달장애인 및 노인 등을 포함한 24시간 돌봄과 생애 전 주기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돌봄 체제 국가책임제 실현, ▲복지 실현을 위한 자립지원 기반 확충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구 조례 개정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와 1교실 2교사제 도입, 통합학급 정원 감축, 행동중재 전담 인력 배치 등을 통한 통합교육 환경 개선, ▲발달장애인 등 대상 거점병원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끝으로 오후 3시 20분에는 ‘대전지역 장애인 가족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앞서 정책협약에 참여한 장애인 단체와 대전지역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이 함께했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이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서미화 본부장은 “오늘 협약은 대전 장애시민의 삶을 바꾸는 출발선”이라며 “오늘 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전국의 장애시민들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간담회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과 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과의 정책 연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끝//

[붙임1] 대전문해교육협의회 정책협약식 현장사진

[붙임2]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정책협약식 현장사진

[붙임3] 대전지역 장애인 가족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현장사진

[붙임1] 대전문해교육협의회 정책협약식 현장사진



[붙임2]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정책협약식 현장사진



[붙임3] 대전지역 장애인 가족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현장사진

